

Vol. 121

2023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11 · 12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HARMONY
HOPE
HAPPINESS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 비전 ★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축
- 한센사업 전문기관으로 역량 강화

★ 미션 ★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리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 사업목표 ★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리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 사업소개 ★



★ 로고 ★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 총연합회 공식 SNS 채널 |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한센 가족과 함께 더욱 나은 내일을 향해

04 스페셜 리포트

2023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14 한센 리포트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사업 집행 및 현장점검 실시

한센인 합동결혼식

낙동 배움행복마을 수료

한센인 요양시설, 맞춤형 제도 마련

한센 현안 사항 협의

한센가족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청구 안내

한센 탐방

32 지부는 지금

광주 · 전남지부

36 유관단체동정

한국IDEA협회

38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한센 공감

39 함께하는 한센

가을_신재문(영락마을 대표)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_박우택

(서울 · 중부지부장)

금성마을 치매예방교육 소감문_이은경 강사

꽃으로 하나 되는 세계_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한센 이모저모

46 한센병 바로알기

50 정보알리미

해외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

의사의 길을 걷는 여행자

(김원 경희대학교 심장내과 교수)

요즘이책

62 독자들의 공간

가로세로 낱말퀴즈

한센게시판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2023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2023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수상자



2023 대한민국 한센대상 부문별 수상자



한센 가족과 함께 더욱 나은 내일을 향해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되새겨보며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총연합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 탈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큰 성원 덕분임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우리 총연합회가 당면한 난관을 헤쳐나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총연합회의 사업과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센 가족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 증액을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친자·배우자는 180만엔, 형제·자매는 130만엔으로 현재까지 149명의 서류를 일본 정부에 송부하였고, 이 중 57명이 보상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5쌍의 한센 부부





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진행하였고, 배움 행복마을 교육과 치매예방교육 종강을 통해 한센 가족이 배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의 체계적인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한센인(병)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결과인 ‘한센인(병)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센인(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센인 가족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유관단체 관계자 등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센 대상 등 수상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많은 후회와 환희, 슬픔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환희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기쁨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몸은 정원이고 마음은 정원사다. 게을러서 불모지가 되거나, 부지런해 풍부하나 거름을 주어 가꾸든 그것에 대한 권한은 모두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후회와 환희, 슬픔과 기쁨’을 통해 조금씩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 길 용

한센인의 사회통합·경제 재활 발판 마련 2023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개최



12월 7일 우리 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MBC, KBS, SBS, 한겨레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한센인대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 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센인 가족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유관단체 관계자 등 주요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한민국 한센 대상 특별상 시상, ▲2023 대한민국 한센 대상 부문별(언론·복지·의료·봉사) 시상, ▲대한민국 한센인 대상 시상, ▲한센 자녀 장학금 전달식 ▲총연합회 한센 관련 사업 동영상 시청 및 한센인 편견해소 홍보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2023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는 한센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널리 알리고,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 및 한센인 화합과 한센병에 대한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

이길용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센 가족과 국민이 소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뤄내고, 한센인들의 사회·경제적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과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라고 전했다.



▲사회자(김병찬 아나운서)



▲식전공연(PAN하임양상블)



▲식전공연(서아름 성악가)



▲대회사



▲기념행사



▲2023 대한민국 한센대상 시상식



▲2023 대한민국 한센대상 시상식



▲한센 자녀 장학금 전달식

2023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수상



이 행사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민석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국회의원이 그간 한센인 복지와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 받아 2023 대한민국 한센대상의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소감 한마디!



조해진 국회의원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 상을 받아보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럽고 가슴 뭉클한 상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해야될 역할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잘해서 보답 드리겠다.”



김민석 국회의원

“한센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데, 너무 오래, 더 빨리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정춘숙 국회의원

“고령의 한센인분들을 위해 새로운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조해진 국회의원
(국민의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
창녕군)

공적내용

한센인들의 현황 및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위로 지원금 증액에 대해 기재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에 노력해 왔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안 마련 등 한센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김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공적내용

한센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복지부와의 법안 마련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한센인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



정춘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

공적내용

한센인의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 한센인의 자활 정착을 위한 사업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한센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실태와 해결책 마련에 기여함

2023 대한민국 한센대상 부문별 수상



한센대상 시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는 ▲언론부문 김선영 취재기자 (KBS청주방송국 보도국) ▲의료부문 오성욱 원장(강남 에이플러스치과의원) ▲복지부문 박수진 선임연구원(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복지부문 이인애 도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봉사부문 신민우 총무이사(한국구라봉사회)에게 수여하였다. 올해의 대한민국 한센인 대상은 조시원 금성마을 대표에게 수여되었다.



올해의 대한민국 한센인 대상 조시원 대표

수상 소감 한마디!

언론부문

김선영 취재기자

편견과 오해 없는 세상을 위해 언론인으로써 노력하겠다.

의료부문

오성욱 원장

무엇보다도 한센 가족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린다.

복지부문

박수진 선임연구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센 가족들을 위해 일하겠다.

이인애 도의원

젊은 청년 여성 의원으로서 한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봉사부문

신민우 총무이사

한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

언론부문



김선영 기자
(KBS 청주방송국 보도국)

공적내용

한센인 복지 시설의 운영 실태를 보도하여,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에 기여함

의료부문



오성욱 대표원장
(강남 에이플러스치과의원)

공적내용

지난 50여년간 전국의 정착마을을 순회하며 의치보급활동을 하였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센인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복지부문



박수진 선임연구원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공적내용

한센병 예방관리 및 의료·복지사업 등 업무를 책임감 있고 헌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센병 관리사업에 크게 기여함

복지부문



공적내용

한센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여함

이인애 도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봉사부문



공적내용

25년간 한국구라봉사회에서 활동하며, 한센인 정착마을과의 가교역할을 통해 한센인들의 치아 건강에 일조하는 등 한센인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함

신민우 총무이사

(구라봉사회)

2023 대한민국 한센인 대상



공적내용

굳은 재활의지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었고, 한센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함

조시원 대표

(금성마을)

2023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후원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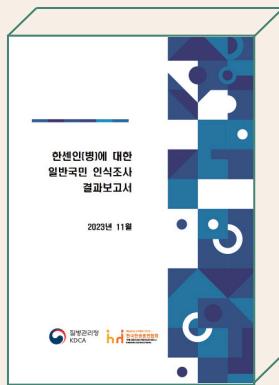
소 속	성 명	금 액	소 속	성 명	금 액
회장	이길용	3,000,000	낙산마을	박건영	100,000
고문	정상권	1,000,000	칠곡마을	홍완근	500,000
고문	박정수	500,000	용호마을	박현석	300,000
고문	박명웅	300,000	삼청마을	채용태	100,000
고문	김정명	500,000	신촌마을	이인식	200,000
이사	김종열	300,000	성곡마을	조윤숙	100,000
이사	박행남	300,000	비룡마을	대표	200,000
이사	김영근	100,000	산성마을	대표	100,000
이사	김형모	300,000	현애마을	이계호	100,000
이사	박형남	1,000,000	향촌마을	대표	300,000
이사	정서기	300,000	성애마을	김기준	100,000
이사	최정기	200,000	여명마을	대표	300,000
이사	최연규	100,000	경성마을	대표	100,000
후원회장	김정남	2,000,000	광명마을	대표	100,000
서울지부장	박우택	200,000	천성마을	대표	200,000
부산지부장	정경욱	200,000	천성마을	김매수	200,000
인천지부장	권태우	1,000,000	신애마을	김덕연	100,000
경기지부장	최광현	1,000,000	상신마을	대표	100,000
전남지부장	지재운	200,000	성진마을	홍순권	100,000
전북지부장	김필중	100,000	신광마을	대표	100,000
경북지부장	안영칠	500,000	양지마을	김순영	100,000
경남지부장	이상용	200,000	신락마을	대표	100,000
전북지부	-	200,000	정애마을	대표	100,000
소혜마을	대표	200,000	희망마을	대표	200,000
소아마을	임수돈	200,000	영민마을	김형철	100,000
영호마을	서금순	100,000	호혜마을	김인철	100,000

소 속	성 명	금 액	소 속	성 명	금 액
한국한센 복지협회	김인권	1,000,000	성심마을	김창일	100,000
경호마을	이상구	100,000	보성마을	대표	200,000
현인마을	대표	300,000	도성마을	대표	100,000
화도새마을 금고	대표	200,000	신촌교회	-	300,000
성광교회	정기호	300,000	前경기지부장	이주상	200,000
신촌마을	대표	100,000	예수원교회	윤하현	500,000
상지마을	대표	100,000	경인마을	도정옥	500,000
신흥마을	대표	200,000	국립소록도 병원자치회	박형석	100,000
신암마을	대표	200,000	덕촌마을	대표	300,000
협성마을	대표	100,000	덕촌마을	전경하	100,000
금호마을	대표	100,000	들꽃훼밀리	대표	100,000
방주교회	김두형	1,000,000	대동마을	대표	100,000
(재)티엘엠 복지선교회	조을연	1,000,000	-	이동욱	200,000
청천마을	대표	500,000	성생마을	임광록	100,000
성신마을	김진국	200,000	성생마을	윤만선	100,000
염광마을	대표	1,000,000	성생마을	김윤곤	100,000
성생마을	박정수	100,000	금성마을	조시원	100,000
대구애락원	-	1,000,000	경애마을	김진남	100,000
충광마을	대표	300,000	-	최종현	100,000
장자마을	최종국	1,000,000	금오마을	대표	500,000
성생마을	이영운	200,000	청산마을	강창모	200,000
성광마을	대표	100,000	소아마을	이상용	200,000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한영기바오 로신부	500,000	덕촌마을	이수일	100,000
재생마을	정복열	100,000	신생마을	대표	300,000
(주)동방디엔씨	대표	500,000	협동마을	정기환	1,000,000
성생마을	대표	3,000,000	거창마을	대표	100,000
여천마을	이희우	100,000			

※ 위 명단은 무순이며, 후원자 또는 금액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총연합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개선되고 있지만... 차별 해소는 여전

-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



우리 총연합회는 일반 국민들의 한센인(병)과 관련된 인식조사 결과인 ‘한센인(병)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격년에 한 번씩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법안 제정 및 효과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발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보고서는 조사개요, 요약 및 시사점, 분석 결과, 2021·2023 비교 등으로 구분되어, 한센인(병)에 대한 인지 및 이해 정도, 한센인(병) 차별 해소를 위한 고려사항, 한센인(병) 정보 습득 및 홍보 등에 대해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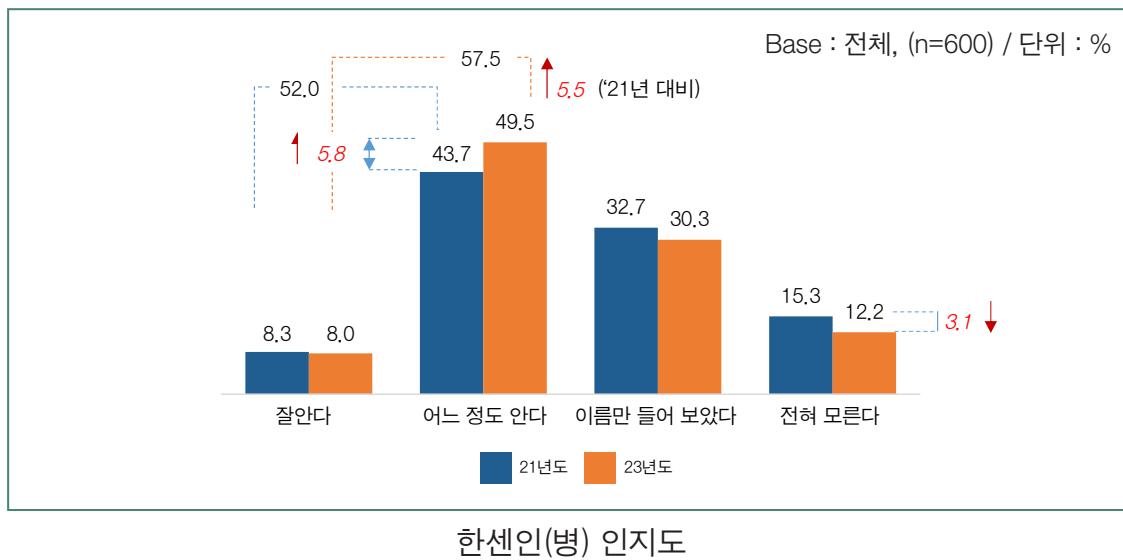
이번 조사를 통해 한센병 또는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정착마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설계하여, 향후 한센인의 고령화로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및 정착마을이 소멸될 경우 그에 따라 남아있는 한센인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이에 따른 연구용역 및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길용 회장은 “한센인(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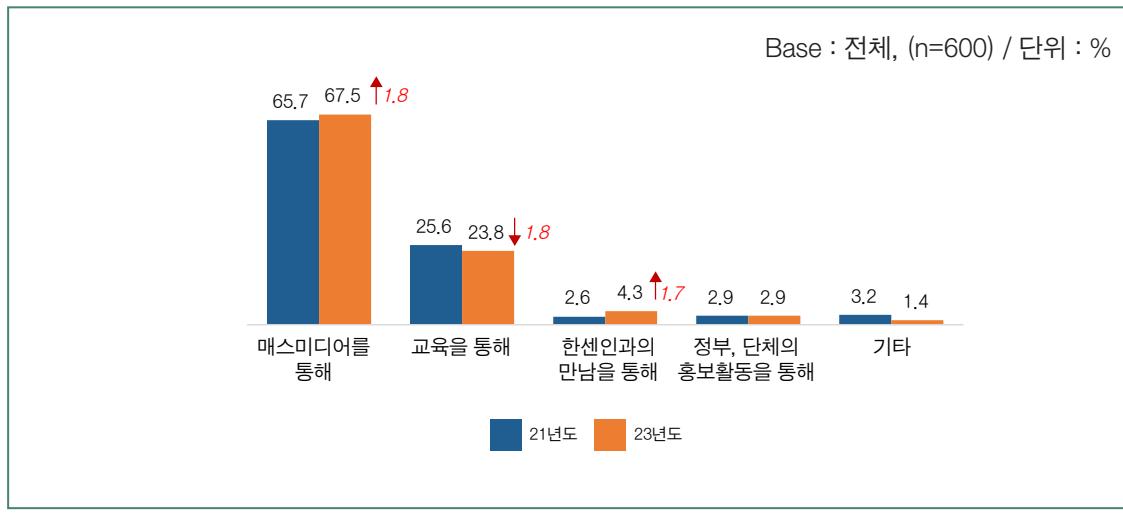
총연합회는 이 보고서가 향후 한센인(병) 관련 정책·제도를 시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총연합회 사업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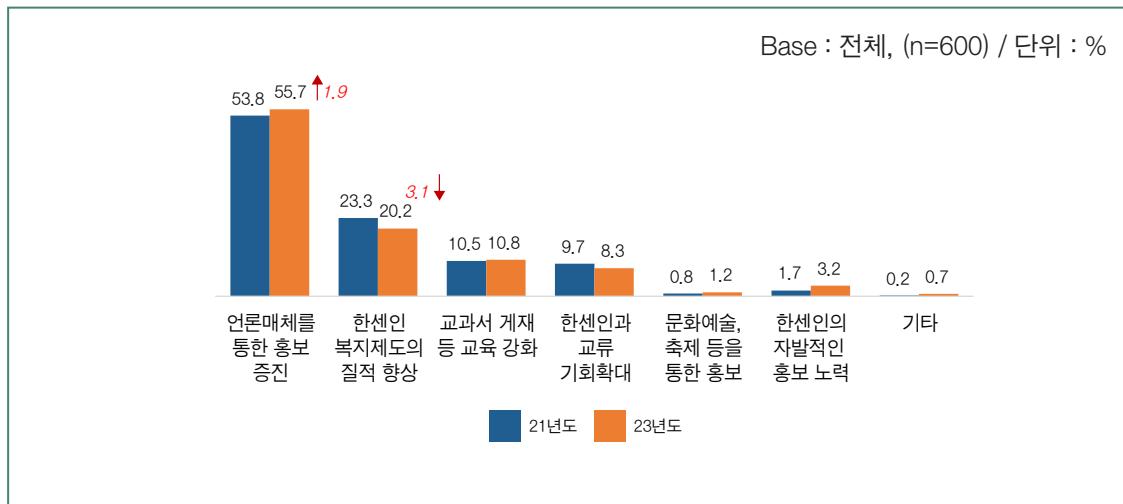
- 한센병 또는 한센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21년 대비 5.5%p 증가한 57.5%로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응답도 5.8%p 증가, ‘전혀 모른다’ 응답은 3.1%p 감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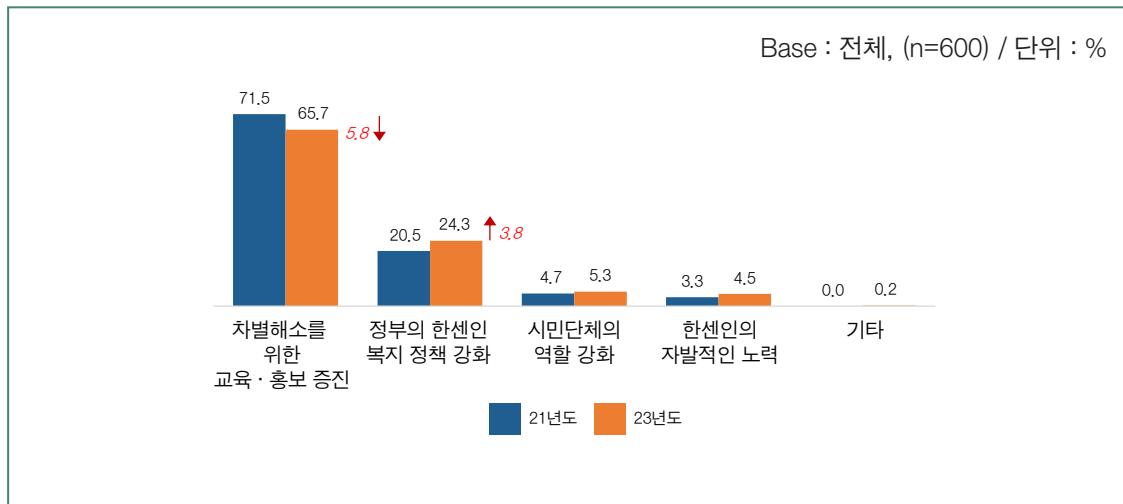
- 한센병이나 한센인을 알게 된 경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가 67.5%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1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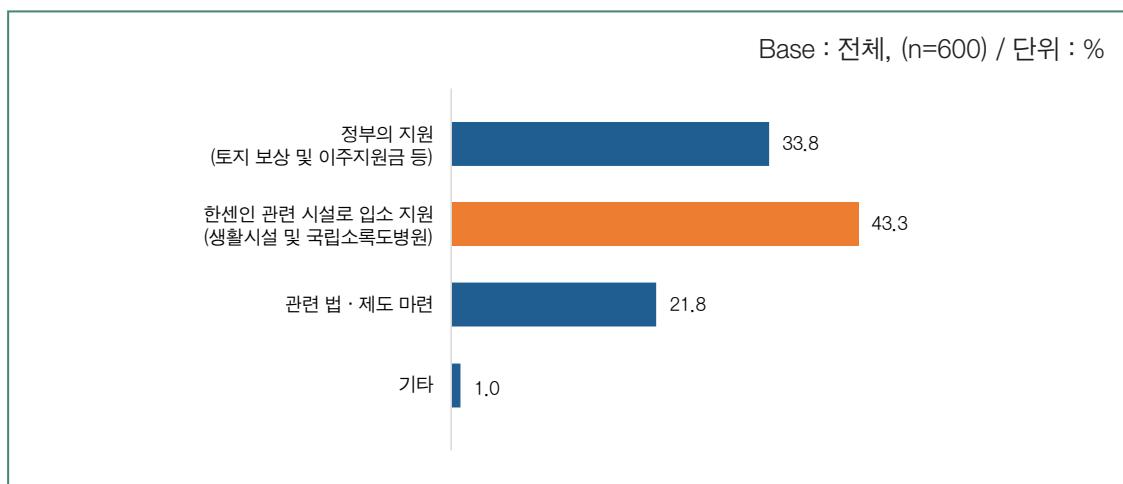
- 한센인 편견 해소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증진’(55.7%)과 ‘한센인 복지제도의 질적 향상’(20.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센인 차별 해소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 · 홍보 증진’은 5.8%p 감소한 반면, ‘정부의 한센인 복지 정책 강화’는 3.8%p 증가했습니다.



●○● 정착마을 거주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80세(22년 12월 말 기준)로 매년 한센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나면 정착마을이 소멸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남아있는 한센인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센인 관련 시설로 입소 지원’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착마을 거주 한센인의 고령화 및 감소로 인해 사회 복귀가 어려워진 한센인들이 한센인 관련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및 현장점검 실시

2023년 하반기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및 현장점검이 11월 22일 질병관리청 박수진 선임연구원과 이용민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동 점검은 국가한센병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센병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 · 점검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방향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질병관리청의 주관으로 매년 2회 실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사업 운영 현황, 사업 실정, 예산 사용 내역, 물품 구비현황 및 기록물 작성 · 보관 상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12월 20일 2024년 한센병환자관리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안) 및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질제고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이 교류되었다.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 총연합회는 10월 31일 더 모임(서울 동대문구)에서 한센인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총 5쌍의 한센인 부부가 참석해 결혼 서약을 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결혼식은 방주교회 김두형 목사의 기도와 주례로 진행되었으며, 이길용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김두형 목사는 “결혼은 사랑과 희망의 시작”이라며 “5쌍의 부부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센인 합동결혼식은 다양한 이유(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곤경 등)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센인 부부들이 공식적인 결혼식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 및 가족 간 유대 강화 등을 통해 한센인의 사회복귀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속하는 등 한센인 복지증진은 물론 한센인 편견 해소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혼식을 마친 부부는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며, “결혼식을 올릴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총연합회가 매년 진행하는 한센인 합동결혼식은 5쌍의 부부를 위해서 헤어 및 메이크업, 의상(ドレス·턱시도), 야외촬영, 결혼식장 대여, 웨딩사진과 앨범, 호텔비용(1박) 등 결혼식에 필요한 전반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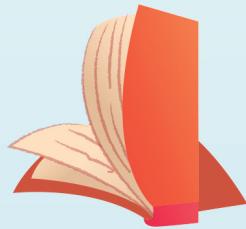
이길용 회장은 “이 결혼식이 한센인들의 삶에 희망과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합동결혼식을 통해 많은 가정에 행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센인 합동결혼식



“배움으로 행복 찾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다.”

낙동마을 - 배움행복마을



11월 30일 낙동마을(경남 김해시, 대표 이차연)에서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을 비롯하여, 이상용 경남지부장, 마을 주민, 교육기관 관계자, 자체 의원과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움행복마을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 앞서 교육생이 컵타와 하모니카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길용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마을 대표 환영사, 축사, 교육 영상 시청, 교육생 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한센인들의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해 배움행복마을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소중함과 유익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배움의 행복이 가득한 낙동마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낙동 배움행복마을 교육은 건강증진과 낙상 예방, 노년의 사회 적응을 돋는 교육을 중심으로 정착마을 한센인의 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해 현장에 찾아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키오스크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니 웃을 일이 많아졌고, 늘 반갑게 대해주며 우리들을 너무 행복하게 해 주셨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마을 대표는 한센인을 배려한 다양한 교육 내용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총연합회는 배움행복마을 교육을 통해 고령의 한센인들이 사회 적응력과 삶의 흥미를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앞으로도 한센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센인 요양시설 사각지대 맞춤형 제도 ‘조정’

11월 7일 충북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 등 전국 5개의 한센인 요양시설의 예산확보와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 현장 조정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을 비롯하여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신병대 청주시부시장, 조은희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전국 5개의 한센인 요양시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센터를 둘러보며, 한센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았으며, 입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온 한센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기반 등 갈등 해소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한센인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및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청주시는 한센인요양시설 관련 운영 기준과 예산편성 등 제반여건 마련 시까지 운영 기준 적용을 유연하게 관리해 한센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센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2009년 12월 청주시에 설치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 및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요양시설로 등록됐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시설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한 목적의 시설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위탁·운영되고 있다.



한편, 애양평안요양소(전라남도 여수시, 이사장 신민철), 안동성좌원(경상북도 안동시, 이사장 조을연), 산청 성심원(경상남도 산청군, 대표원장 신현재 라이문도 수사), 성라자로마을(경기도 의왕시, 원장 한영기 바오로 신부)은 1950년대부터 종교재단 주도로 설립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한센병 요양시설로 등록하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운영 중이었다.

한센인의 초고령화로 요양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센 생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를 제한하고 있고, 요양보호 인력 부족 등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제도 기반이 부재하여 한센인에 대한 충분한 요양보호 및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의 경우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및 제도 기반 부재로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기준 미충족으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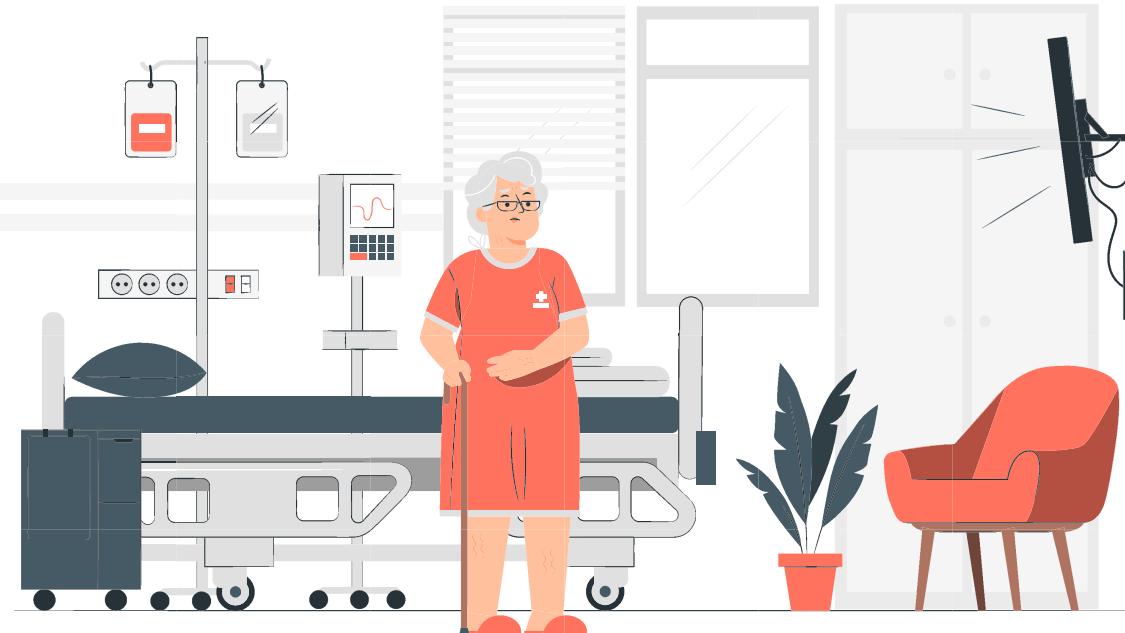
우리 총연합회를 비롯하여 한센인 요양시설의 1,196명 한센인은 한센인요양시설의 특성에 맞는 운영 기준 마련과 개선 대책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며, 이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2022년 7월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청주시, 질병관리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를 비롯한 전국 한센생활시설은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기준 마련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한센인 요양시설 입소 시 운영 규정 준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길용 회장은 “평균 연령 80세가 넘는 고령의 한센인들이 이제라도 마음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및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한센인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가 지속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한센인 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은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청주시에서도 한센인 및 한센인 시설 입소자들이 주거환경이 나아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센 현안 사항 협의



▲ 조해진 의원(국민의 힘)

우리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과 우홍선 사무총장은 11월 21일 조해진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한센인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2023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에 초청했다.

또한, 우리 총연합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동포구 을)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 증액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현재 월 17만 원인데, 이는 제주 4·3 사건 관련 특별법에 기초하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 2023 국정
감사에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
지원금에 대해 발언 중

이어 “한센인 피해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관심의 사각지
대에 놓여있다.”라며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실
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모든 사업의 예산 증
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증액 추진에 매우 힘든 과
정을 겪고 있지만, 위로지원금은 한센인 피해자들의 생존권
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지원금 증액을 통해
한센인 피해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해 요청해오고 있다.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01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보상 청구의 내용

02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4. 11. 24.까지(한시법)

보상 대상

02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04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안내 및 문의

05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3. 11. 20. 기준 149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 7차 1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57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임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기에 청구시한 전에 2~3개월 여유 있게 한국변호인단에 서류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
- 문의사항 : 한국한센총연합회 정태영 과장
 - 전화 : 1566-2339 / 팩스 : 1566-2032

한센인 정착마을과 어울림 한마당



한국한센총연합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지재운)는 12월 1일 도성마을회관 강당에서 도성마을(대표 강수웅)과 여천마을(대표 이희우) 한센인 주민 200여 명을 위해 사단법인 들꽃훼밀리(대표 김우영) 주관으로 ‘제10회 한센인 정착마을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강수웅 대표의 환영사, 축하 말씀, 다양한 공연, 식사로 이뤄졌다.

지재운 광주·전남지부장은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사를 주최해 주신 들꽃훼밀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수웅 도성마을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 한센인 주민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들꽃훼밀리 김우영 대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정착마을의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2005년 전라남도 산하 비영리단체인 들꽃훼밀리를 창단하였고, 지금까지 이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이다.

2010년 전남 함평에 위치한 재생마을과 처음 인연이 닿아, 매년 12월이면 한센인 정착마을을 방문하여 정착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감사의 정을 나누고, 세상의 차별로 소외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언어로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김우영 들꽃훼밀리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착마을 한센인 주민들이 즐겁게 지내고, 희망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 들꽃훼밀리, 한센인 문화복지 사업 활성화 협력...



아울러, 총연합회 우홍선 사무총장은 12월 14일 전남 목포에서 들꽃훼밀리 김우영 대표와 업무 협의를 가졌다.

이날 만담에서는 ▲정기적인 협의를 통한 업무 활성화 ▲문화공연 등 한센인 문화복지사업 증가 ▲들꽃훼밀리의 회원 수 증가

방안 ▲들꽃훼밀리의 한정된 예산의 증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홍선 사무총장은 “들꽃훼밀리는 한센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연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단체”라며 “총연합회와 들꽃훼밀리가 협력해 한센인 문화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우영 대표는 “총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센인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향후 총연합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신의 작은 사랑과 관심은 한센인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입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호소를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23년도 선교보고 대회 및 후원의 날’ 행사 개최



한국IDEA협회(대표회장 정상권)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선교보고 대회 및 후원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IDEA협회 후원자, 후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회는 국내외 한센인 및 극빈자들을 위한 지난 1년 동안의 선교 사업 보고를 통해 후원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표회장 정상권 회장은 “금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한센인 및 극빈층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린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제23회 국제IDEA봉사상 시상식과 한센마을 교회 선교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IDEA봉사상 선교부문에는 예닮교회 양내권 목사, 운영위원 이상률 장로, 사회복지부문에는 자문위원 김성오 장로, 소생교회 김광남 권사가 수상했으며, 선교후원금은 소록도연합교회, 소록도중앙교회, 신성교회에 전달했다.

어르신 인지능력 향상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10월 24일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다른그림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른그림찾기 프로그램은 사물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발견하며,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어르신들 간의 친목 도모와 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정하 센터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찾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센터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 을 신재문(영락마을 대표)

가을은, 자연과 함께 설레는 계절
황금물결, 넓은 들 바라보며
가을바람 불어오는 언덕길에서
아름다운 자연 품에 안기고 싶어라.

계절 따라 익어가는 풍요로운 알곡
가을을 기다리듯
시간 따라 익어가네.

밝은 가을, 밤하늘 바라보며
노래하는 귀뚜라미 벌레 소리
가을이 아쉬운 듯 처량도 하여라.

무성했던 신록, 황혼길에서
자연 따라 예쁘게 변모되어
너무 아름답게 사라져 가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바빠지는 농부들
짧은 가을 아쉬워하며
익은 알곡 거두기에 기쁘기만 하네.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박우택(서울 · 중부지부장)

12월, 속절없는 세월, 또 한 해가 저문다.
‘언젠가는 쟁하고 해 뜰 날 있으리라’며 참고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벌써 춥고 어두운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
그 누구도 피할 길 없는 인생의 종점에서 뒤
돌아보니 참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행복한 노후를 꿈꿔 보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
어른을 경시하는 언행들이 난무한다.
‘올드 보이’, ‘꼰대’
일상에서는 무조건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생각해서 하는 말 같으나 조금은 거시기하다.

나는 속으로 말한다.
‘너희도 늙어봐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문화가 너무 아쉽다.

김형석 교수의 100세 일기 중에 언급된 늙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그것은 일, 여행, 사랑이란다.

건강정보나 식품에 매달리는 것보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윤기 있는 노후를 보장받을 것이다.

우리 경로당에 오시는 80대 초반의 어르신이 계신다.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하신다.
잔심부름도 도맡아 하시고 개인적인 사소한 애로사항도 봉사해 주신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짧은 분이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 온다.
나이의 무게를 못 느낄 만큼 밝고 건강하시다.
'육체는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얻는다.

모 신문사 기자가 보내온 카톡 중에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말라'는 글을 보고 눈이 번쩍 열렸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 사회적인 문제라고 해서 기가 죽었는데, 통계상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한다.
용기를 내어 면허를 갱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늙은이에게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다.

서울에 사는 돈 많은 한 친구는 마냥 행복한 줄만 알았다.

주변에 사람이 없단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만 채울 수는 없나 보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데, 더불어 함께 나누며 동행하는 삶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

‘열정이 가득한 금성마을 어르신들과 나눈 정’ 금성마을 치매예방교육 소감문



이은경 강사

의성 금성마을 치매예방교육 15주...
시작하기 전에는 길게만 느껴졌다.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지금은 ‘벌써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느낌은 무엇일까? 아마도 어르신들의 열정이 아쉬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거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가!!”

첫날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다. 처음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어렵다. 오랜 세월 나만의 편한 방식으로 살아오신 어르신의 짜증 섞인 말은 당연한 반응이었다.

“우리의 뇌는 잘하는 것보다 처음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라고 설명해 드렸다. 이처럼 첫 시간은 치매에 대한 설명과 15주 동안 진행되는 활동들의 당위성을 알려드리는 것에 집중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항상 손이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손을 쓰지 않는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손이 불편하신 분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시도록 격려하며 도와드렸다.

지오보드를 할 때는 고무줄 잡기가 힘들어 볼펜을 도구로 이용해



다른 쪽은 어르신이 잡도록 하였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신문지 잡은 두 사람의 웃음이 넘쳐나는 시간이었다.

초반에 손이 불편한 한 어르신은 수업 도입부에 있는 날짜 체조를 할 때 손을 흔드는 동작을 책상 밑에서 하셨다. 몇 주 후에 “어르신 우리 가슴 위로 흔들어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요.” 하였더니 손을 번쩍 드시면서 신나게 흔드셨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색종이 공 만들기, 직조짜기 등 색지를 이용한 활동을 할 때 고운 색지를 보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도 기억이 남는다.

인지교구(에그퍼즐, 지오보드, 숫자칩) 활동 때에는 “머리를 쓰니 땀이 나고 공부가 된다.”라고 하시며 “집에 가셔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 교육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계심을 느꼈다.

아픈 다리를 팔로 짚어가며 나오신 분, 중간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여 나오신 분 등 어르신들의 책임감과 열정을 강사인 내가 배우는 시간도 되었다.

마지막 시간 총무님의 감동적인 이별 노래가 귓가에 맴돈다. “어디 간들 잊으리오~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 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정을 함께 나눈 어르신들의 건강을 항상 기원하며, 경치가 아름다운 금성마을을 다음에 또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드리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꽃으로 하나 되는 세계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꽃처럼 다양한 ‘상징’을 가진 존재도 드물다. 연인에게 장미를 선물하거나 어버이날이나 승의날에 부모님,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 장례식이나 추도식에서 흰 국화를 현화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자 일종의 사회적 합의처럼 여겨진다. 장미는 사랑, 카네이션은 감사, 흰 국화는 조의라는 각각의 꽃이 지닌 상징성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꽃은 각각의 꽃말이 있다. 해바라기는 이름처럼 한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이나 기다림, 숭배를 뜻하고, 백합은 순수·희생이라는 꽃말이 있다.

꽃말은 서양문화권의 신화, 역사 등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지만 꽃이 지닌 상징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다. 동양화에 자주 등장하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사군자는 군자가 갖춰야 할 고결함과 절개를 상징한다.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이른 봄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난초는 산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며, 국화는 가을 서리를 맞으면서 피어나고,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사군자처럼 꽂은 계절을 상징하기도 한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로 여겨지며, 국화는 유명한 시에도 등장할 정도로 가을 하면 떠올리는 꽃이다. 한 가문을 상징하는 존재로 꽂이 쓰이기도 했다. 영국의 왕위계승권을

놓고 30년간 이어진 ‘장미전쟁(Wars of Roses)’은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문과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커스터가문 사이의 싸움이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꽃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를 꼽자면 단연 네덜란드의 알스미어일 것이다. 알스미어는 인구 3만여 명의 작은 도시지만, 세계 최대 화훼경매장이 있다. 세계 1위 화훼수출국인 네덜란드는 지난해 115억 유로의 꽃과 식물을 해외에 수출했다.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꽃이 지닌 경제적 파급력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게 한다. ‘꽃의 나라’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꽃은 툴립으로, 네덜란드의 국화(國化)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국화를 정하지 않더라도 국가 대부분은 자국을 상징하는 나라 꽃이 있다. 스위스의 에델바이스, 미국과 영국의 장미, 베트남과 인도의 연꽃 등 전 세계 나라만큼이나 나라꽃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무궁화는 이름 그대로 ‘다함이 없는 꽃’이다. 저녁에는 오므라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새 꽃을 피운다. ‘피고 지고 또 피어’라는 가사처럼 끈기와 강인함을 지닌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닮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 자리 잡았다.

오는 11월 3~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양재 플라워 페스타’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전 세계 102개국의 나라꽃을 소개하는 ‘꽃으로 하나 되는 세계’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를 방문하면 꽃을 통해 각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별적인 의미를 떠나 꽃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움과 번영, 평화와 행복을 상징한다. ‘꽃길을 걷는다’ ‘재능을 활짝 꽂피우다’ 등의 표현은 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를 잘 보여준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세계 곳곳이 위태롭고 혼란스럽다. 세계 각국의 꽃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이 평화와 공존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꽃과 함께 잠시라도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센 이모저모

한센병 바로알기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A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 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3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The image shows two rectangular posters side-by-side. The left poster has a light blue background with white clouds at the top. It features a stylized sunburst with a small tree in the center. The text '평동 땅동 약 복용 시간입니다' is at the top, and below the sunburst is the text '개인별 권고 처방에 맞춘 올바르고 꾸준한 약 복용, 내 몸과의 약속입니다.' At the bottom, there is a hand holding another hand over a green landscape illustration. The logo 'hdi' and '한국한센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N HANSEN'S DISEASE' are at the bottom. The right poster has a purple background. It features a thick orange diagonal line. The text '[국어사전] 굽은 선 : (명사) 한쪽으로 휘거나 휘어져있는 선' is at the top, followed by '한센을 보는 굽은 시각 이제 바로 잡아주세요.' at the bottom. Logos for '보건복지부' and '질병관리청' are at the bottom.

'11월 22일, 김치의 날', 해외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

해외 김치의 날 현황 ※10월 기준 단위: 곳

구분	국가	지역	일자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2021년 8월 23일
		버지니아주	2022년 2월 9일
		뉴욕주	2022년 2월 17일
		워싱턴 D.C.	2022년 6월 28일
	브라질	하와이주	2023년 4월 2일
		상파울루시	2023년 6월 6일
		아르헨티나	2023년 7월 5일
		영국	킹스턴왕립구
발의	미국		미 연방
		뉴저지주	2023년 4월 6일
선포	미국	매릴랜드주	2022년 11월 21일
		조지아주	2022년 10월 31일
		미시간주	2022년 10월 15일
		텍사스주	2022년 10월 31일
		페어팩스카운티	2022년 11월 19일
	풀러턴시	2023년 3월 8일	

자료: aT

미국 하원 김치위원회가 '11월22일' 김치의 날로 선보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12월6일 본회의에서 채택 예정 (통과 시 미 연방정부 최초 김치의 날 공식 기념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의 ‘김치 사랑’이 세계 곳곳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취임 2년 9개월여간 진심 어린 ‘K-김치’ 전도 행보가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등 세계 곳곳에서 ‘김치의 날’ 제정 또는 선포 ‘팡파르’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aT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김치의 날’ 제정의 시발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다. 2021년 8월 23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하며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다.

당시 김춘진 사장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신남방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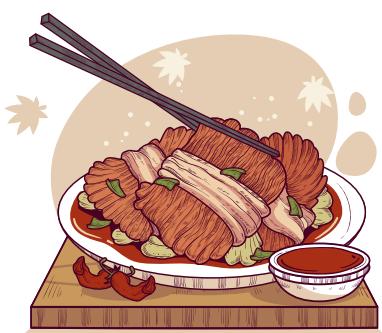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주(2022년 2월 9일), 뉴욕주(2022년 2월 17일), 워싱턴 D.C(2022년 6월 28일),

하와이주(2023년 4월 24일)까지 미국 곳곳에서 ‘김치의 날’ 제정 붐이 일었다.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 상파울루시(2023년 6월 6일), 아르헨티나(2023년 7월 5일), 영국 킹스턴왕립구(2023년 7월 11일)도 ‘김치의 날’ 제정에 동참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미국, 브라질, 영국과 달리 범국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사장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가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첫 국가로 매우 뜻깊다.”면서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 고무적인 것은 ‘김치의 날’이 미국 공식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4월 한국계 영 김(공화당) 의원·미셸 스틸(공화당)·앤디 김(민주당)을 비롯해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 하원 감독위는 연방정부 업무를 감독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공휴일과 기념일에 대한 안건도 관장하고 있다.

별 이견 없이 12월 6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미 연방정부의 ‘김치의 날’ 제정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다.

김 사장은 “‘김치의 날’을 미국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재발의돼 12월 6일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념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김춘진 aT 사장이 16일 서울 aT센터에서 글로벌 김치의 날 선포식을 주재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김치의 날’ 제정은 현재 진행 형이다. 미국 뉴저지주와 몽골의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전후해 미국, 브라질 등 현재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김치 판촉전,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의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aT는 ‘김치의 날’을 글로벌 기념행사로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 사장은 “글로벌 ‘김치 데이’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면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aT에 따르면 마크 워너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김 사장에게 김치세계화 및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격려를 표하는 감사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11월 16일 aT센터에서 글로벌 김치의 날(Global Kimchi day) 선포

식을 열고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은 세계적으로 우리 김치의 인기과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해외 김치의 날 제정 확산을 위한 자율적 협력 협의체 ‘글로벌 김치포럼’도 이날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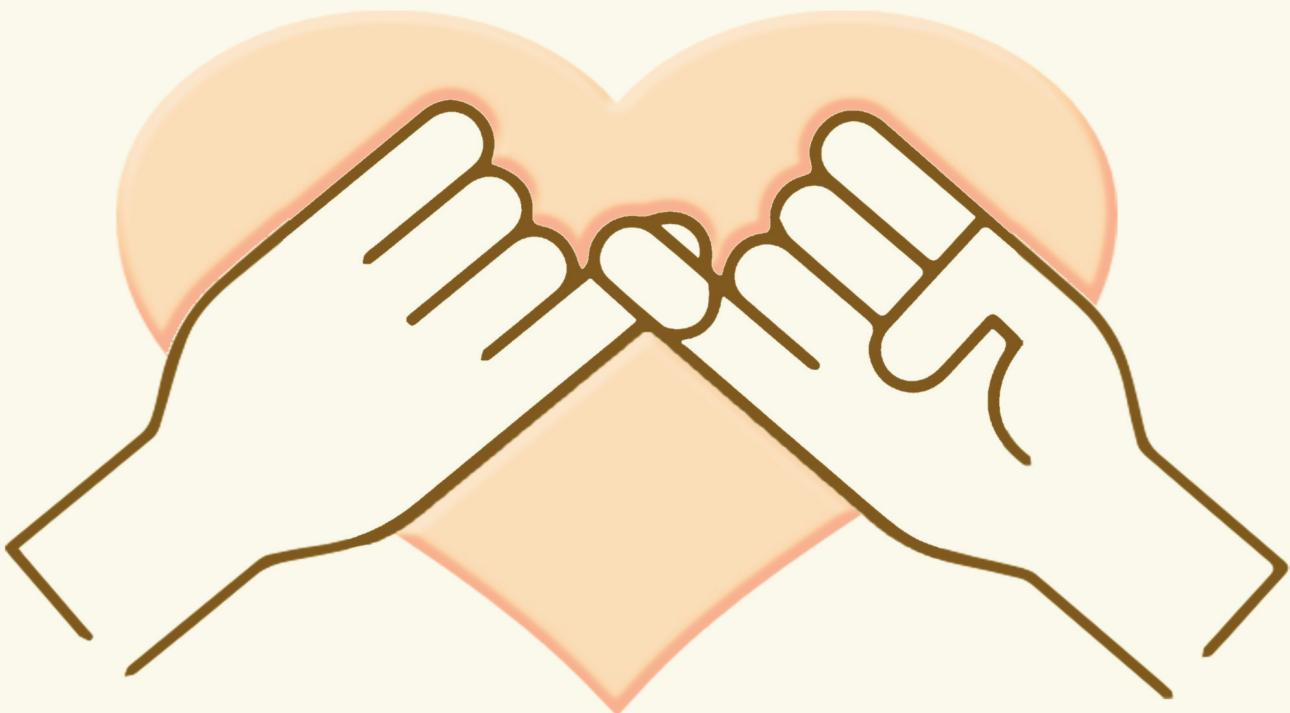




띵동 띵동 

복용 시간입니다

개인별 약 복용법에 맞게
올바르고 꾸준한 약 복용,
내 몸과의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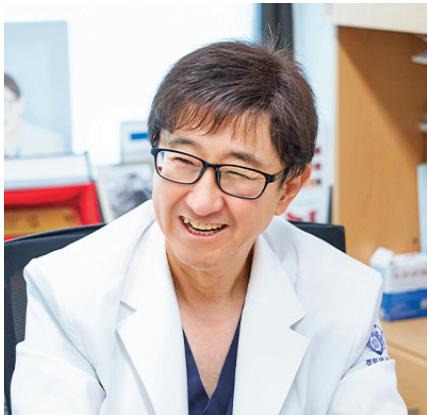


Mapping a better future...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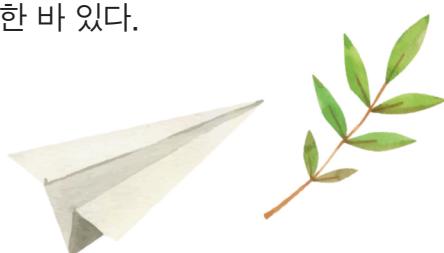
김원 경희대학교 심장내과 교수

■ 전문 진료분야

- 허혈성 심질환, 말초혈관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 약력 및 학회 활동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미국심장병학회, 유럽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혈전지혈학회 정회원이자 대한중재시술연구회 인증제위원, 대한스텐트연구학회 흥보이사, 대한순환기학회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일본 나고야의과대학 연구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의사의 길을 걷는 여행자



어린 시절, 공상과학영화를 보며 우주를 동경했던 소년은 심장을 연구하는 의사가 됐다. 의사의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걸어가는 여행자의 삶’이라고 비유한 김원 교수.

항상 새로운 의학 지식을 공부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지만, 여행자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돋는 인도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도 의사의 길을 따라 환자를 만난다.

“환자를 웃는 얼굴로 대하세요”

김원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지긋한 나이의 어르신 환자로 북적인다. 그는 어르신 환자에게 최대한 가까이 몸을 붙여 목소리를 듣고 몸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같은 심장 질환을 앓더라도 젊은 환자에 비해 호소하는 증상이나 표현이 다르기에 생긴 오랜 습관이다.

“어르신 분들은 아파도 정확하게 증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소하는 여러 증상들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일 수많은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익숙할 거라고 여기겠지만, 환자는 늘 새롭습니다. 또 그래야만 하고요. 의사로서 처음 환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사고가 안 납니다.”



“김원 교수는 날마다 여행자처럼 다양한 환자를 만난다.
환자의 증상에 귀 기울이고,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병이 있음에도 삶을 긍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러포즈 2023년 가을호 vol.447 中]



초심자의 마음으로 환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언뜻 진부할 수 있지만, 심장내과 최고참의 료진의 말이라는 점에서 새롭고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일까, 환자를 만나는 그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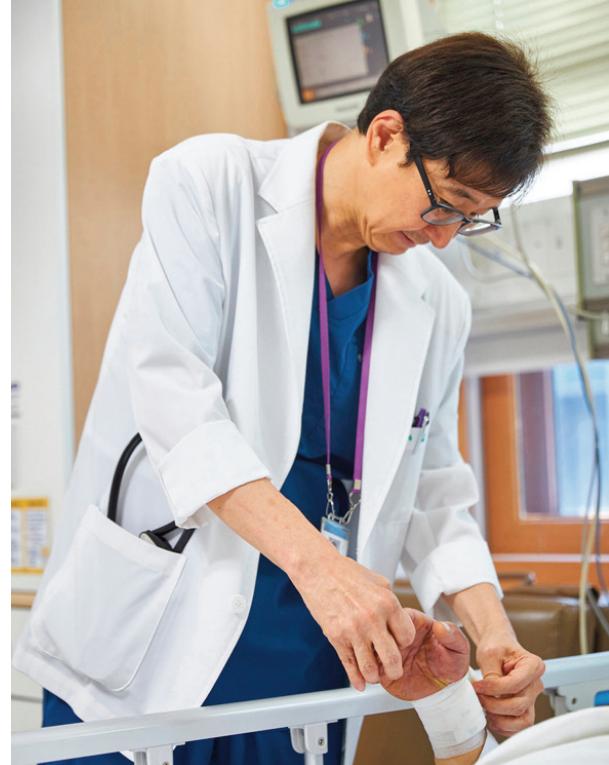
“아침마다 아내가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환자를 웃는 얼굴로 대하고, 짜증 내지 말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요. 하루의 끝에서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의사로서 끊임없이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죠.”

심장학회 최초로 심근경색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심근경색증 환자의 혈관 재협착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무수한 밤을 지새웠던 것도, 심장노화 연구와 심혈관 질환에서 장내미생물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묵묵히 연구의 자리를 지켰던 것도 김원 교수 스스로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묻는 과정 속에서 이뤄졌다.

3D(Dramatic, Definitive, Delightful)의 자부심과 열정으로

김원 교수는 전공의 시절 진로를 결정할 때 1, 2, 3지망 모두 심장내과를 써냈다. 심장내과가 아니면 안 가겠다는 결연한 마음이었다.

“요즘은 심장내과가 전공의들 사이에서 어렵고 피하고 싶은 진료과라고 하지요? 심장내과는 어떤 과보다 3D한 과입니다. Dramatic(극적이고), Definitive(결정적이고), Delightful(정말 기쁜) 하죠. 3D의 자부심과 열정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곳에 특효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욕심을 덜어내고 환자의 곁에서
터벅터벅 눈앞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심장 질환의 골든 타임은 90분. 심장 기능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에크모*를 장착하는 동시에 막힌 혈관을 뚫는 인터벤션을 시행하며 김원 교수는 무수히 많은 3D의 순간을 경험했다.

* 에크모 :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서 혈액을 환자 몸에서 빼내어서 체외 산화장치에서 산소를 혈액에 주입한 동시에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다시 환자 몸 속으로 혈액으로 돌려 보내는 장치이다.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은 아마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하루에 스무 건 이상 해낸 적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늘 처음 하는 긴장감으로 수술대 앞에 서요. ‘테크닉’만 추구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10년 후까지 생각해 치료의 내용과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을 추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이책

자료제공 : 교보문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니체, 톨스토이, 아인슈타인에게 영감을 준 쇼펜하우어의 삶과 지혜에 대한 격언

- * “나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여태껏 한 번도 몰랐던 강력한 기쁨을 만끽했다.” - 톨스토이
- * “쇼펜하우어는 모든 희망을 잃고도 진리를 추구한 유일한 인물이다.” - 니체
- * “이 책이 지금의 명성을 얻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아하고 매우 실용적이다.” - 로버트 짐머

철학자들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는 늘 비관론자, 비평가, 아웃사이더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삶의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었다. 1851년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냉소적이지만 누구보다 현실적인 행복의 의미를 풀어냈고,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읽히며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철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말의 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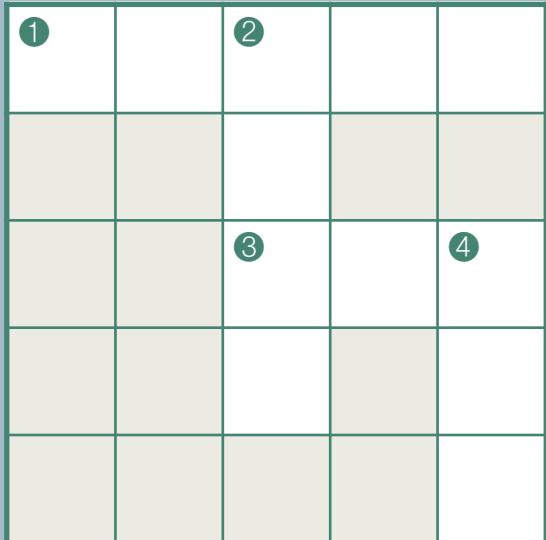
“말과 마음이 100% 같은 사람은 없다.”
“말로 마음을 100% 표현할 수도 없다.”

상대와 대화를 나누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다. 말에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말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도 한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고, 생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 말의 속도, 목소리 톤, 몸짓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다. 가족, 동료,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뒤에 숨은 진심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소통이 힘들고 오해가 쌓이게 된다. ‘괜찮아’, ‘몰라’, ‘아니’ 등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습관을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언어의 마음을 읽는 법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대화의 기술로 소통을 해결한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지난호 정답

①	우	리	②	마	을	
				감		
				뉴		
		③	스	키	④	장
					마	

참여방법

우편, 이메일, 총연합회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 우편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아이리스빌딩 2층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앞
- ◆ 메일주소 : hansen@hansenkorea.org
- ◆ 카카오톡 : '한국한센총연합회'로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정답 전송
- ◆ 보내실 내용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정답(정답이 기재된 사진 또는 종이)
- ◆ 문의전화 : 02)1566-2339

가로세로 낱말 퀴즈

가로문제

- ① 한센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알리고,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 '2023 대한민국 ○○○○○'(P4 참조)
- ③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려서 구운 김.

세로문제

- ② 총연합회는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법안 제정 및 효과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센인(병) 일반국민 ○○○○ 보고서'를 발간했다. (P14 참조)
- ④ 김장을 담그는 철. 대개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를 이른다.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 · 학술 · 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중앙회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청천동)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402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죄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11 · 12 월호